

어학동아리 인터뷰

-환경생명화학전공 '토성'

글로벌 사업단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학 및 취업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풍부한 지원 혜택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과에서 앞다투어 동아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범이 될만한 사례로 환경생명화학전공의 '토성'이 있습니다. 본받을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아리원 중에 한명인 우가희 학우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1. 동아리의 개설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토익 성적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어학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뿐 아니라 토플 등의 다른 어학 자격증에 관한 정보들과 개인의 어학 공부법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익스터디 모임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동아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동아리는 인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주로 LC보다 RC 위주로 스터디를 합니다. RC는 일정량을 정하여 개념을 공부해오고 문제들을 먼저 풀어 오면 모임이 있는 날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각자만의 tip을 이야기 해주며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하여 오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두었다가 파트너끼리 영어단어 test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LC는 매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각자가 공부를 하였으나 시간이 남는 날은 LC기출문제 test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3. 동아리 활동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동아리 멤버들이 가입하기 전에는 토익성적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고 성적이 있더라도 600점이 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학동아리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적이 쑥쑥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2학기 말이 되었을 때 800점 이상 성적이 나온 학생도 있었으며 800점 가까이 성적을 올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4. 동아리 활동 중 보완해야할 점은?

서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은데 각각 다른 학년들이 모여 활동을 하려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보다 한 학기가 시작될 때 서로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그 시간은 동아리활동 시간이라고 정해둔 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대로 활동을 하면 더 수월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은?

학기 초반에는 다들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나 후반으로 갈 수록 지치거나 열정이 떨어지는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두가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임하도록 기발한 스터디방법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동아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점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도 가끔 만들어 보려 합니다.

